



“불황엔 고전”...출판계 개정판 발간 붐

시대를 조율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책을 고전이라 한다. 고전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할 뿐 아니라 변화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를 선물한다. 역사 이래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명멸했지만 살아남은 책이 바로 고전이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고전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유례없는 문학 출판계 불황이라고 하지만 고전만큼은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그만큼 책의 가치가 판매와 연계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은 단연 전 세계 지식인의 필독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다. 저자는 지난 20세기를 빛낸 지식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헝가리 출신 예술사학자 아놀드 하우저(장비식 표기로는 아르놀트 하우저·1892~1978)다. 한마디로 그는 인간의 지적 야심이 얼마나 넓으면서 깊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지식인이다.

최근 장비에서 펴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예술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접근한 책이다. 선사시대부터 영화시대까지를 예술 사회학의 관점에서 조명했는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1951년 영문판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20여 개 연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어린왕자’ ‘민들레 영토’ 등

시대를 초월한 지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잇따라 출간

어ろ번역될 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1966년 ‘장작과 비평’ 가을호에 책의 일부가 소개되었고 1974년 현대의 예술부분(지금의 4권)이 장비에서 출간되었다. 국내 첫 완역은 1981년으로, 소개된 지 15년 만에 이루어졌고 1999년 한번 개정판을 거쳤다. 이번 개정판은 199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판으로, 총 500점에 달하는 컬러도판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 쉽고 재미있게 구성됐다.

하우저는 이 책에서 예술을 신비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제활동 일환으로 봤다. 무엇보다 하우저는 예술형식과 예술가, 수요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매개로 인간, 사회, 예술의 관계를 들여다봤다.

방대한 자료와 이를 꿰어내는 해안, 술술 읽히는 문체가 특징이었던 책은 읽을 가치가 귀하던 시절 예술적 심미안에 목말랐던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다. 맑스의 유물사관이 어느 정도 녹아 있었지만, 하우

저는 고정불가의 입장이 아닌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조망했다.

산지출판사는 일본의 사상이 미조구치 유조(1932~2010)의 ‘방법으로서의 중국’을 펴냈다. 서구의 중심주의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적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자는 내용이다.

1989년 발간 당시 저자는 중국의 근대사는 ‘진보-보수’, ‘사회주의-자본주의’, ‘선진-후진’과 같은 서구식 이분법 시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을 견지했던 터라 당시 일본뿐 아니라 중국학자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문서뿐 아니라 동화도 개정판이 출간됐다. 인디고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의 첫 번째로 ‘어린 왕자’의 불환 개정판이 나온 것.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미성 교수가 생텍쥐페리의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작품을 아름다운 한글로 옮겼다.

번역자는 프랑수아가 영어로 번역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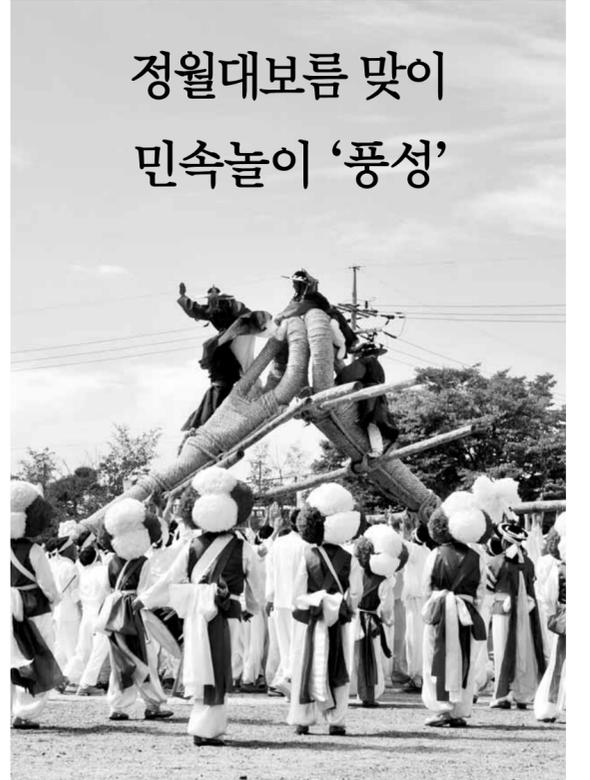
다소 의미가 모호했던 부분을 우리 정서에 맞게 바꾸었다. 원작의 감동이 행간마다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이해인(71) 수녀의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도 출간 40주년을 맞아 최근에 발간됐다. 초판본을 재현한 양장노트로 함께 출시돼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민들레의 영토’는 1976년 2월 이해인 수녀가 종신서원을 하며 발간한 기념 시집으로, 시인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담겨 있다.

1945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이해인 수녀는 1970년 ‘소년’지에 동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온 뒤 잠언 같은 시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이해인 수녀는 최근에 신작시를 발표하며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1월에 영면한 신영복 선공회대 석좌교수의 유작 ‘처음처럼’ 개정판도 곧 출시된다. 출판사 돌베개는 최근 은오프라인 서점에 책의 목차를 공개하고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처음처럼’은 신 교수가 생전에 ‘다시 쓰고 싶은 편지’라고 표현했던 대표 저서다. 그는 병환 중에도 개정판 작업에 공을 들였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지난해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서 열린 고싸움놀이축제.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쌍암공원·남구 칠석동

당산제·쥐불놀이·고싸움놀이 등 행사 진행

오는 22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우리 조상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당산제, 마당밭이 등을 하며 풍년을 기원하고 이웃간 화합을 도모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21일 ‘2016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오전 10시부터 개최한다. 광산농악보존회가 펼치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당산제, 마당밭이 등이 펼쳐지며 창작연을 띄워

놀이마당에서는 민속놀이(웃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투호놀이, 가족줄넘기, 팽이치기 등 9종목)가 진행된다. 각 종목별로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업전이 제공되고 업전은 라면 등 상품과 바꿀 수 있다. 제기차기 대회도 열리고 손오공과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부

럽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 남도민요, 가야금병창, 통타 공연 등이 진행되고 튀밥, 군고구마, 찰밥 등을 나눠먹는 시간도 갖는다. 문의 062-613-5363.

같은 날 광주시 광산구 첨단 쌍암·응암공원 일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제13회 가족연날리기대회’·‘제18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가 동시에 열린다. 연날리기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현장 접수를 받으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는 줄다리기, 길놀이, 당산제 등이 시작되며 오후 7시50분 달집태우기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는 20~23일 ‘제34회 고싸움놀이축제’가 펼쳐진다. 축제기간 고싸움 놀이·고 퍼레이드를 비롯해 진도북놀이(전남무형문화재 18호), 통영 옹골대 놀이(국가무형문화재 6호), 남사당놀이(국가무형문화재 3호) 등 공연이 펼쳐진다. 또 대동 큰 줄다리기(21일), 소원성취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도 진행된다.

그밖에 북구 삼각동 원삼각마을에서는 21일 오후 5시부터 달집태우기를 진행하고 광산구 운남동 자연마을 일원에서는 제11회 당산문화축제가 열린다. 북구 충효동, 남구 승촌·노대·철석·진제·덕남마을에서도 21일 당산제가 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스토리 랩 공모 작품상 ‘코 없는 벼수’ 발간

2015년 광주전남 스토리 랩 공모에서 우수 스토리로 선정돼 작품상을 수상한 ‘코 없는 벼수’(문학들)가 발간됐다.

엄수경 동화작가가 쓰고 양준화 화가가 삽화를 그린 이 책은 판소리 서술 양식을 차용하여 읽는 재미와 듣는 재미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 삽화 가운데 돌로 만든 장승의 코를 깎아 달여 마셔 임신을 했다는 ‘벼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주인공 화정려는 용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지상에서 그녀는 아이를 접지하는 삼신이 된다. 화정려 때문에 마을의 여자들이 임신을 하지만, 문제는 화정려가 아이를 접지할 줄만 알지 낳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여자들은 열 달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처



한다. 과연 화정려가 아이를 접지하는 ‘벼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듯 설화를 매개로 창작된 동화는 판소리의 정과 이야기 인 아니니로 전개된다. 독자가 이야기를 판소리 가락에 따라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책 뒤면에는 판소리 장단 설명과 그림이 수록돼 있어 이해를 도왔다.

소설가 채희운은 “영태와 출산이라는 인류의 숭고한 임무들을 우리 설화에서 추출한 의미 있는 저작”이라면서 “지칫 민감할 수 있는 성적 내용을 우회시켜 간접화한 점은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평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또 다시 Again’ 공연

23일 광주 풍암동 ‘싸목싸목’

사)문화예술협회가 진행하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35회 행사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협동조합 ‘시민의 꿈’이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싸목싸목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새해 첫 공연의 주제는 ‘또 다시 Again’이다. 연주 계획했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의미를 담은 기획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해설을 곁들였다.

첼리스트 윤소희씨가 ‘사랑의 인사’, ‘백조’를 선사하며 플루티스트 김용씨가 오카리나 연주로 ‘Fly me to the moon’을 들려준다.

또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윤소희

‘빅밴드 싱어즈’의 바리톤 김재선씨와 베이스 장문석씨가 ‘베시메무초’와 ‘풍문으로 들었소’를 노래한다. www.artgji.co.kr. 문의 062-384-2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국내산 참나무장작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남권 전지역 3루베이상 무료배송 (일부지역 제외)

대한임업(주)

절단목
쪼갠목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장작구이, 캠핑용 등 각종 용도별 생산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